

광주시향 400회 정기연주회

‘혁명가들’

14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프로코피예프·쇼스타코비치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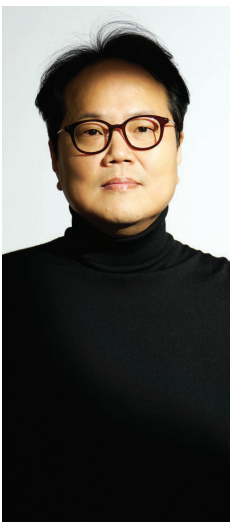
예술가들의 생존·혁신으로 연결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제400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4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광주시향의 단원들의 모습.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GWANGJU SYMPHONY ORCHESTRA

예술의 저항과 희망...시대 뛰어넘은 울림 전한다



지휘자 이병욱



피아니스트 김규연

“예술은 세상을 바꾸는 조용한 혁명이다.”

1976년 창단 이후 쉬 없이 이어온 광주시립교향악단(광주시향)의 예술의 여정이 어느덧 400회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있다. 광주시향의 제400회 정기연주회는 광주 예술사의 중요한 이정표로 남을 만한 무대다. 반세기에 걸친 광주시향의 여정은 곧 광주 음악사의 흐름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시향이 오는 14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제400회 정기연주회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의 제목은 ‘혁명가들’. 시대와 맞서는 예술가의 정신을 주제로 삼은 이번 공연은 단순한 연주회를 넘어 지역과 함께 호흡해온 광주시향의 역사와 철학을 압축하는 무대로 관심을 모은다.

첫 곡은 러시아 작곡가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이다.

1913년 당시 ‘러시아 음악계의 반항아’로 알려진 프로코피예프는 이 곡을 통해 청중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었다. 서정 대신 폭발적인 리듬을, 균형 대신 불협화음의 충동을 택한 그는 낭만주의의 익숙한 어법을 거침없이 부수며 새로운 음악의 지평을 열었다. 특히 1악장의 긴 카덴자와 격렬한 피날레는 연주자에게 한계에 가까운 집중력과 체력을 요구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김규연이 협연자로 나서 젊은 프로코피예프가 품었던 불안과 열정을 자신의 해석으로 풀어낸다.

김규연은 지나 바카우어 영 아티스트 국제 콩쿠르 우승, 더블린 국제 콩쿠르 준우승을 비롯해 쾰

엘리자베스, 클리블랜드 등 세계 주요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낸 연주자다. 2017년 카네기홀 리사이틀 데뷔 당시 ‘자연스러운 호흡과 진정성 있는 해석’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어지는 무대는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이다.

이 작품은 20세기 음악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예술과 체제의 갈등’을 담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소련 당국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쓰였지만 그 안에는 검열의 시대를 견디던 예술가의 복잡한 내면이 녹아 있다. 섬세한 선율이 점점 격정으로 변해가는 흐름은 인간이 억압 속에서도 존엄을 지키려는 몸부림과 같다. 특히 4악장의 승리 행진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상처 입은 시대가 맞이하는 ‘의지의 선

언’으로도 읽힌다.

이번 공연을 지휘하는 이병욱 예술감독은 두 작품을 ‘예술가의 생존과 혁신’으로 연결해 풀어냈다. 그는 “프로코피예프와 쇼스타코비치는 체제의 압박 속에서도 예술로 말하고, 저항하고 살아남았다”며 “그들의 음악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용기와 희망이 무엇인지를 묻는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시향의 발자취

1969년 시민교향악단 모태

1976년 광주시향 공식 출범

지역대표 예술단체로 자리매김



이번 400회 정기연주회를 펼치는 광주시향은 지난 1969년 고(故) 장신덕 교수가 지역 음악인 30여 명을 모아 창단한 광주시민교향악단이 모태였다. 1976년 7월 광주시는 시민교향악단을 토대로 광주시립교향악단을 공식 출범하며 지역 문화 기반을 다졌다.

초대 상임지휘자 장신덕을 시작으로 금노상, 구자범, 김홍재, 홍석원 등 국내 주요 지휘자들이 바통을 이어받으며 오케스트라의 전통을 쌓아왔다.

광주시향은 매년 40회 이상 공연을 이어가며 지역 대표 예술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신년음악회와 협연 무대는 대부분 매진을 기록할 만큼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임운찬(2022), 케빈 케너(2023), 예마누엘 파워(2024) 등 세계적 연주자들과의 협연을 통해 지역 오케스트라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렸다.

현재 광주시향은 예술감독을 포함해 총 81명으로 구성돼 있다. 바이올린 26명, 비올라 10명, 첼로 8명, 더블베이스 6명 등 관악·금관·타악 단원이 조화를 이루며 안정적인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 1월 취임한 이병욱 예술감독은 제14대 상임지휘자로서 ‘오텀음 콘서트’, ‘제임버 시리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1984년 광주시향에 첫발을 디딘 김용석 팀파니 수석단원은 “개인적으로 올해 12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오랜 여정을 함께한 단원으로서 제400회 정기연주회를 맞는 감회가 새롭고 감동이 밀려온다”며 “많은 지역민이 함께해 광주시향을 축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함께 정년을 맞은 이재연 비올라 상임단원 역시 “관객의 따뜻한 박수와 동료들의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 광주시향이 더 큰 울림을 주는 오케스트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1976년 10월 30일자로 광주일보에 보도된 광주시립교향악단 창단 공연 당시 기사 내용. <광주일보DB>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또 다른 얼굴

신누리 작가 ‘도씨 이야기’ 전

8~17일 동구 아크갤러리

전통문화 속 도깨비는 다소 괴상하고 기이한 모습이다. 권선징악과 연계된 서사의 모티브로 차용될 만큼 흥미로운 소재였다.

그러나 오늘날 도깨비는 과기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친숙한 캐릭터로 인식된다. 우리의 전통문화 콘텐츠가 K 컬처를 견인하는 상황과 맞물려 고전 속 주인공들은 다양한 굿즈 등 인기 상품으로 부상한 것이다.

도깨비를 모티브로 한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아크갤러리에서 ‘도씨 이야기’ (8~17일)를 주제로 첫 개인전을 여는 신누리 작가. 그는 이번 전시에서 기이한 모습의 도깨비가 아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또 다른 얼굴로 접근한다.

작품 ‘도씨들’은 무섭다기보다 귀엽고 깜찍한 도깨비를 초점화했다. 설화 속 도깨비는 머리에 뿔이 나 있고 방망이를 들고 있는 위압적인 모습인데 반해, 화면 속 도깨비는 장난기가 가득하다. 알록달록한 화려한 차림은 가장무도회에 나온 도깨비들 무리를 현상시킨다. 하지만 어딘가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은 오히려 이면에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처럼 보인다.

도깨비를 ‘도씨’로 명명한 것은 친근하면서도 나약한 특징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도씨의 모습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나의 모습이 겹쳐 있다.



‘도씨들’

신 작가는 “‘도씨 이야기’는 어딘가 모르게 인간의 나약함과 불안함을 담은 도깨비를 담아내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안정적이지 못한 현실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그림에도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문화재단의 ‘청년예술인 창작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아 진행된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무대... ‘광주시민연극제’ 열려요

7~9일 광주아트홀...3단체 작품

농촌 마을 여고생들의 성장기부터 수명 연장이 현실이 된 미래 사회, 그리고 시한부 판정을 받은 남자의 엉뚱하지만 다정한 결심까지. 서로 다른 시대와 인물의 이야기가 결국 ‘살을 사랑하는 법’을 함께 이야기한다.

광주 서구문화원이 주최하는 ‘제11회 광주시민연극제’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광주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에는 생활 속 연극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고 누구나 무대를 통해 스스로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올해 무대에는 세 개의 극단이 참여해 각기 다른 감성과 주제를 담은 세 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첫날인 7일 오후 7시에는 조대영극단 부학생들로 구성된 극단 하이드림이 여고생들의 우정과 성장통을 그린 감성극 ‘아카시아 꽃잎은 떨어지고’로 막을 올린다.

작품은 시골 마을 여학생들의 일상과 감정을 진솔하게 담아낸 성장극이다. 서울에서 전학 온 ‘수영’과 시골 소녀 ‘미자’의 우정, 교생 선생님과 대한 동경과 10대의 설렘, 가족 간의 갈등을 섬세하게 풀어낸다. 사춘기의 불안과 화해, 그리고 피고지는 아카시아 꽃잎처럼 스러지지만 아름다운 정춘의 한때를 그려낸다.

8일 오후 3시에는 극단 ‘여배우 불남새’가 SF극 ‘안-수명은 어찌나?’를 무대에 올린다. 2009



극단 정가장의 ‘기막힌 오해’ 연습 장면.

<광주서구문화원 제공>

년 창립된 여배우 불남새는 성평등과 인권, 기후 위기 등 사회적 이슈를 무대 언어로 풀어내며 관객과 꾸준히 소통해온 여성 연극단체다.

이번 작품은 2052년 미래를 배경으로 22세에 사망한 주인공 ‘안수명’이 냉동보존 상태에서 되살아나는 설정으로 시작한다. 수명 연장 기술이 일상화된 시대, 인간은 죽음을 피하지만 오히려 삶의 의미를 잃어간다. 영생을 향한 욕망과 윤리적 갈등, 기술이 만든 불평등의 단면을 풍자적으로 그려내며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질문한다.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3시에는 서구문화원 연극단 수강생들이 모여 창단한 아마추어 극단 ‘정거장’이 코믹 드라마 ‘기막힌 오해’로 연극제를 마

무리한다.

‘기막힌 오해’는 평소 건강염려증이 심한 한 남자가 갑작스러운 시한부 판정을 받은 후 아내를 위해 ‘새 남편’을 찾아주려는 엉뚱한 계획을 세우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오해가 꼬리를 물고 진실이 드러나면서 인물들의 관계가 유쾌하게 뒤엎힌다. 웃음 속에 가족의 따뜻한 정과 사랑의 의미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다.

서구문화원 정인서 원장은 “생활 속에서 연극을 즐기고 실천하는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라며 “공연예술을 가까이에서 체험하며 지역민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따뜻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